

국민의당 ‘몰락의 길’로 가는가



이홍재의 세상만사

주필

노년의 백발은 아름답다. 중년의 은발도 멋있다. 은발(銀髮) 하면 먼저 생각나는 이가 있다. 강경화 외무장관이다. 처음 그가 대중 앞에 섰을 때 그 무엇보다 하얀 머릿결, 참 인상적이었었다.

며칠 전 강 장관의 은발 논란이 있었다. 해프닝의 당사자는 국민의당 김종태 의원. 그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렇게 말했다. “(강 장관의) 하얀 머리가 참 멋있습니다. 여사분들이 지금 백색 염색약이 다 떨어졌답니다. 그렇게 인기가 좋답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김 의원의 발언에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가 쏟아졌다. 여기저기서 ‘사과하라’는 외침이 이어졌다. 김 의원은 ‘도대체 뭘 사과하라는 말이나’는 듯 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맞고함을 질렀다. 발언 직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성적 비하 발언을 서슴지 않는 행태’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이 정도를 과연 ‘성적 비하’나 ‘여성 비하’라고 볼 수 있을까. 물론 정책 질의는 하지 않고 외모만 언급한 것은 부

적절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긴 하지만 아름답다는 칭찬이 어찌 성적 비하인가. 쉽게 공감하기 어렵다는 이도 많을 줄 안다.

자, 지면에 옮기기도 민망하지만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지. 미성년 제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인 배용재(53) 씨 말이다. 그가 최근 법원에서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배 씨는 2011년 7월부터 3년간 자신의 미성년 문하생 9명을 대상으로 성희롱과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학생들에게 “나는 너의 가장 예쁜 시절을 갖고 싶다” “시 세계를 넓히려 하면 성적 경험이 있어야 한다” “내가 네 첫 남자가 되어 주겠다” 따위의 말을 했다. 그리고 자신의 창작실에서 여고생들의 몸을 강제로 더듬거나 성폭행했다고 한다. 참 가증스럽기 짝이 없다. 어땠는가? 죄질이 이 정도는 돼야 악질 중에 악질이라며 모두가 공감하지 않겠나.

정쟁의 희생양이 된 김이수

여기에 비하면 앞서 김 의원의 발언은 그저 ‘성희롱 경범죄’ 축에도 끼기 어렵지 않을까 한다. 그런데도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성적 비하’나 ‘여성 비하’나 하면서 그토록 흥분하고 나선 것은 무엇 때문일까. 아마도 바로 전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고 난 후의 양극이 작용했지 않나 싶다. 여당으로서는 김 후보

자에 대한 부결이 그만큼 아팠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부결은 1988년 헌재 출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지 않은가.

아무튼 국회 부결을 놓고 여론은 맹비난을 이어갔다. 청와대는 ‘헌정 질서를 정치적이고 정략적으로 이용한 가장 나쁜 선례’라며 ‘무책임한 다수의 횡포’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적폐연대’라거나 ‘탄핵과 정권 교체에 대한 불복’이라고 야 3당을 싸잡아 공격했다.

물론 이러한 주장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들도 잘한 것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지명한 뒤 국회 통과를 위한 노력을 충실히 하지 않았다. 여당 역시 대통령에 대한 높은 지지율만 믿고 야당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지금 욕을 가장 많이 먹고 있는 쪽은 국민의당이다. 부결될 만한 특별한 흠결이 발견되지 않았던 김 후보자가 정쟁의 희생양이 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런 가운데 보수 야당과 손잡고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켰으니 국민의당을 향해 세간의 비난이 쏟아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그러한 비난을 의식해서인지 국민의당 쪽에서는 “민주당에서도 반대표가 나왔을 것이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도 소신 투표를 했을 것”이라고 책임을 전가했다. 인준안 부결이 국민의당 의원들의 반대 탓만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당 의원 중 절반 정도가 반

대표를 던졌으리라는 건 모든 언론의 일치된 분석이다.

국민의당에 대한 비난이 어느 정도 심한지는 인준 부결 직후 해당 기사에 대한 댓글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 국민의당은 이 부결 건으로 우리와 결이 아주 많이 다르다는 걸 알았고 조금 이나마 남았던 애정도 모두 버리고 했다.” “자유한국당이랑 다른 점이 하나라도 있나?” 이밖에 “민주당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을 잃었지만 국민의당은 호남을 잃었다”라는 댓글은 매우 날카로웠다.

개구리도 움츠려야 뛰거늘

이러한 댓글들을 보며 한때 호남에서의 다당체제를 지지하고 그런 점에서 국민의당이 잘 되기를 바란 적이 있는 나로서는 난감했다. 특히 “국민의당이 스스로 죽는 길을 택했구나”라거나 “국민의당 몰락의 정주곡이 될 것이다”라는 댓글을 보면 서는, 진한 아픔과 함께 요즘 말로 격한 ‘폭풍 공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캐스팅보트도 좋고 정국의 주도권도 좋다. 하지만 ‘조자룡 한 칼 휘두르듯’ 힘을 아무 데나 함부로 쓰면 결국 국민이 등을 돌린다는 사실을 어찌 몰랐을까. 아생연후살타(我生然後殺他)라 했다. 아무래도 국민의당은 상대를 공격하기 전에 우선 스스로를 돌아보며 추이를 살펴봐야 했다. ‘위기십길’(圍棋十訣)에 나오는 대로 ‘상대방이 강하면

먼저 스스로를 보강해야 한다’는 피강자보(彼強自保)의 진리를 알아야 했다.

그러나 무엇이 그리도 급했는지 서두르다가 소탐대실(小貪大失)의 우(愚)를 범하고 말았다. 눈앞의 작은 성취에 급급했지만 결국 작은 것이고 큰 것이고 얻은 것은 없었다. 계도 구력도 다 잃었으니 민심의 요구를 저버린 처참한 결과다. 물론 정부의 양보를 노리는 한편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하기 위해 쇠뿔을 바로잡자는 계산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결과는 소만 죽게 된 꼴이다. 교각살우(矯角殺牛)다.

‘개구리도 움츠려야 멀리 뛰다’는 속담이 있다.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의 지혜다. 국민의당은 움츠려야 할 때와 뛰어야 할 때를 분간하지 못하고 햇볕질을 날렸다. 그렇게 해서 존재감을 과시했느냐 하면 그렇지 못했다. 안타까운 일이다.

‘민주당의 2중대’라는 소리가 듣고 싶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유한국당 2중대’ 소리를 들어서야 되겠는가. 정부 여당이 밀고 밀고 들어오지 않겠나. 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현 정부가 잘한다는 의견(70%의 지지)이 훨씬 더 많지 않은가. 조금은 참고 때를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하지 않을까. 개구리는 오줌을 함부로 누지 않고 일부러 오줌보에 가득 모아 두었다가 적을 만나면 한 번에 ‘찍’ 쏟아 붓는다고 한다. 앞으로 국민의당이 살아 남 수 있는 일말의 희망이라도 갖기를 원한다면, 하도못해 이러한 개구리의 작은 지혜라도 배워야 하지 않겠는가.

“사회적 합의 통해 어등산 개발 서둘러야”

관광단지 조성 토론회

어등산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각계 각층의 이해 당사자들이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류영국 한국도시계획학회 박사는 13일 오후 광산구청 7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구 정책기획단 주관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진단 및 해결과제’ 토론회에서 공공성과 상생을 강조했다. 류 박사는 “해당 부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만큼 공공성이 강조돼야 하고, 상호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해 당사자 간 대립과 충돌보다는 “대규모 판매 시설이 입주할 경우 상권 영향 평가와 지역 협력사업 추진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류 박사는 특히 “KTX와 고속도로 등의 교통편의성이 있는 광산구는 이 기회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어등산을 관광 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참신한 개발 방식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재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정책위원장은 “사업 자체가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돼온 점과 유통재벌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정확하게 짚고 가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광주에서 공적 자금을 투입해 가족친화형 유원지, 공원시설 등을 조성하는 등 제 3의 방식으로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창희 전남대 교수는 “그동안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보니 이후 특급호텔 등이 들어서면서 개발 필요성이 상쇄됐다”며 “관광 발전이라는 취지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또 “4가지 기본 시설을 놓고 이해당사자들이 입장을 달리하고 있는데 서로 양보,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창현 광주전남연구원 박사는 “어등산에 ‘킬러콘텐츠’가 없는 관광단지 만들 어놓으면, 관광객 유입 효과가 없는 예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며 어등산을 관광 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참신한 개발 방식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진단 및 해결과제 토론회’가 지난 13일 광주시 광산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광산구청 제공)

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문 박사는 이어 “광주시는 민자 의존, 어등산리조트 협약으로 스스로 발목을 잡았다”며 “어등산 사업만의 킬러콘텐츠가 있었다면, 국비 사업 공모 등의 다양한 해결 방안이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만오 광산시민연대 수석대표는 그동

안의 임시방편적 사업 추진 경로를 지적한 뒤 “얼마나 수익을 낼 것인가보다는 광산구의 문화, 역사, 전통을 담아 어등산 단지를 개발해야 한다”며 “특히 어등산, 역사권, 황룡강 벨트를 잘 구성해 문화거점도시를 만드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최승렬기자 srochi@

3.3km 국내 최장 목포해상케이블카 오늘 기공식

서남해안 관광거점인 목포시가 체류형 관광시대를 열어 줬었다. 목포시는 새천년종합건설(회장 정인재) 컨소시엄이 500억 원을 투자한 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이 정식인가를 마치고 15일 목포 신안비치호텔 야외주차장에서 기공식을 갖는다.

목포해상케이블카는 총길이 3.3km(해상 0.82km 포함)로 국내 최장의 케이블카다. 유달산 서면 리라유지원 앞에서 출발해 유달산 마당바위 아래 상부승강장을 거쳐 바다 건너 고하도까지를 왕복하는 노선이다.

목포해상케이블카는 기업과 석의 절경인 유달산과 다도해의 아름다운 풍경 그리고 목포도심에서 영산강 하구인 남암신도시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어 목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관광, 음식, 숙박, 운송 등의 분야에서 연간 1000억 원 이상의 경제유발효과가 기대된다. 또, 목포시가 추진하는 도심재생사업과 시너지효과를 발생, 원도심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28일 국군의 날 행사 창군 첫 해군기지서 개최

문재인 정부 들어 첫 국군의 날 행사가 오는 28일 창군 이후 처음으로 해군기지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에서 군은 전략무기를 대거 공개함으로써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억제 의지를 과시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14일 “건군 제69주년 국군의 날 행사가 9월 28일 오전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정부 주요 인사, 군 수뇌부, 장병 등 35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국군의 날

은 6·25 전쟁 당시 국군의 38선 돌파를 기념하는 10월 1일이지만, 올해는 추석 연휴와 겹쳐 나흘 앞당겨 개최하게 됐다.

국방부는 “이번 기념식은 북한의 도발 위협에 따른 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해 최초로 육·해·공 3군 합동 전력이 해군 기지에서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국군의 위용을 과시하고 적의 도발시 단호하게 응징한다는 임전 필승의 결의를 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한마음 공인중개사

▶ 동구 산수동 대지
654㎡(약 400㎡)는 도로부지 편입) 푸른길 집, 삼거리 코너(뒷집 작업중), 매매 4억3천만원

▶ 나주혁신도시내 택지개발지구
빛가람동 대지 239㎡ 건물 1층 142㎡ 임대보증금 3천만원 월300만원 포함, 매매 4억2천만원

▶ 무등산 총장사근처 고급전원주택
금곡동 대지, 전, 임야 3,500㎡, 주택 1층 126㎡ (주택임 정원 잔디밭 700㎡, 주택 뒷편 밭 800㎡, 주택옆 대나무숲 1,300㎡, 주차장 소재) 사정상 금매, 매매가 7억(조정가)

▶ 화순 도곡은천내 무인텔
대지 3,000㎡, 건물 4층 3동, 객실 37개, 월 매출 6천만~7천만원(장부공개), 용자 28억원 포함, 매매가 37억

▶ 임대 - 중흥동 중흥초교 옆 건물(전체 리모델링완료)
1층상가 94㎡, 뒷편 창고사용가능, 보1천만 월120만원
2층사무실 94㎡, 보1천만원 월40만원
3층사무실 94㎡, 보1천만원 월30만원

매물 접수, 상담 환영
☎ 문의 010-2314-8567 김형호
계림오거리

돈되는 NPL 투자비법과 경매

4기 수강생 선착순 모집

주식투자에 연연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경매를 하고 있나요?

제로금리시대, 불안하나요?
퇴직이후가 걱정되나요?

이 시대 최고의 재테크!!
소액투자로 고수익을 볼.

2017년도 2학기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모집기간 : 2017년 8월 29일(수) ~ 2017년 9월 15일(금)
·교육기간 : 2017년 9월 7일(목) ~ 2017년 12월 14일(목)
매주 목요일 주간 10:00~12:00 야간 19:00~21:00
·수강료 : (한학기) 20만원 (예금주: 조선대학교) 광주은행 004-107-000152
·신청방법 :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http://chosun.ac.kr/ lifelong [인터넷 수강신청]
·접수문의 : 062)230-7700~2 상담지도교수 : 송용욱 010-9416-1200

2017년도 2학기
순천대학교 평생교육원

·모집기간 : 2017년 8월 1일(화) ~ 2017년 9월 15일(금)
·교육기간 : 2017년 9월 5일(화) ~ 2017년 12월 22일(금)
매주 화요일 야간 19:00 ~ 21:00
·수강료 : (한학기) 20만원(예금주 : 순천대평생교육원) 농협 643-01-007060
·신청방법 :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http://ileong.suncheon.ac.kr [인터넷 수강신청]
·접수문의 : 061)750-5076~8 상담지도교수 : 송용욱 010-9416-1200

“메이커스페이스 명문 전남대학교 주관”

2017 호남 메이커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4차산업혁명의 주역인 메이커스페이스 운영전문가 양성과정

전남대학교와 식스팩토리에서는 호남지역의 메이커(Maker) 문화를 선도할 「2017 호남 메이커아카데미」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 교육일정 및 장소

교육 차수 (지역)	교육내용	교육기간	장 소
2차 교육 (광주광역시)	메이커스페이스 운영자 양성 과정	2017. 9. 20~24	전남대학교 산학협력2호관 107호
3차 교육 (전북 전주)	메이커 강사 양성 과정	2017. 10. 17~22	전북대학교 메이커 교육장
4차 교육 (전남 여수)	메이커 강사 양성 과정	2017. 11. 27 ~12. 2	전남창조경제 혁신센터 2층 교육장

▶ 주 최 : 중소기업진흥기금부 한국과학창의재단

▶ 주 관 : 전남대학교 식스팩토리

▶ 교육비 : 무료

▶ 대 상 : 메이커스페이스 운영자 및 메이커 활동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 접수문의 : 062)530-5081, 6facmaker@gmail.com

▶ 세부내용 : https://6facmaker.modoo.at/